

• 풍향계 •

중기청, 대전·충남 지방사무소 개소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이 지난 달 18일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대전시 유성구 장동 소재)에서 대전·충남 지방사무소(소장 정동창)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지방사무소는 사무소장을 비롯해 지원총괄팀, 기술지원팀, 시험검사팀, 수출지원센터, 종합민원실 등 5개 부서에 25명의 인력이 근무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인력, 컨설팅 등 경영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을 맡는다. 특히 수출지원센터는 수출·금융·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해 마케팅지원, 바이어알선 등 지역 내 수출·입 업체에게 전반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8년 중기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충남지방 중기청이 폐지되었으나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지방사무소 형태로 설립하게 된 것이다.

지방사무소는 이미 지난 11일 관련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업무를 개시해 자금과 기술, PL대책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청장을 비롯해 염홍철 대전시장, 박병석·이재선·송석찬 국회의원,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무병장수를 꿈꾸며.. 오송바이오엑스포 개막

‘무병장수의 세계로 오십시오’

‘2002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지난달 24일 충북 오송 엑스포장내 주제광장 특설무대에서 김석수 국무총리 서리와 정원식 엑스포 조직위원장,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 이원종 충북지사 등 국내·외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가졌다.

개막식은 ‘바이오로 열어 가는 새로운 세상’을 테마로 하는 개막행사와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한 식전행사,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로의 출발’을 주제로 한 식후행사로 각각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게놈프로젝트 완성자인 크레이그 벤터 박사와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인 폴 너스 박사, 아시아 게놈프로젝트 권위자인 요시요키 사카키 교수 등이 영상메시지를 보내와 바이오 엑스포의 국제적인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한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는 개막식과 별도로 25일 일반에 공개됐다. 바이오엑스포는 10월 24일까지 개최되며 생명관, 의약관, 소재관, 산업관 등 6개 전시관에서 생명현상의 신비와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등을 보여 주게 된다.

이밖에 ‘오송국제심포지엄’과 ‘생물공학회학술회의’ 등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어 세계 바이오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다.

문의 : 042-861-5005



▲ 중기청대전사무소개소식



▲ 오송바이오엑스포 개막식

• 신제품/신기술 •

지지21, 차량용 음성안내 GPS 출시

차량용 음성안내 GPS의 기능이 한층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됐다.

차량용 GIS·GPS 생산 전문 벤처기업 지지21(대표 이상지)은 기존의 GPS ‘캐치웨이’에 음성합성기술을 추가한 업그레이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대덕밸리 음성인식기술 벤처기업 에스엘투(대표 전화성)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존 구매고객은 추가 비용부담 없이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운전 중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으로 목적지 이름과 방향, 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목적지 길안내 기능과 과속단속카메라 경보기능이 통합된 제품을 3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많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향후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우광정보통신과 생산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최근 홍보전시관을 개관한 아리랑공원단지 박용식씨가 제품홍보를 맡아주시기로 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월 평균 3천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042-822-9921

성진테크윈, 핸드프리 무선시대 ‘활짝’

핸즈프리 무선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대덕밸리 군수용품 전문 벤처기업인 성진테크윈(대표 이계광)은 기존의 연결선을 없앤 신개념 무선 핸드프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핸드프리는 핸드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휴대폰과 핸드프리 통신을 ‘자계 수신 및 RF 무선방식’이라는 독자 개발 방식을 사용, 휴대폰 소리의 1백% 가까운 재현성을 발휘한다.

국내 핸드폰 통화방식인 CDMA는 물론 유럽의 방식인 GSM등 통신방식과 무관하게 작용하는 점도 강점이다. 기존 핸드프리의 문제점인 울림현상과 잡음문제도 해결했다. 별도의 노이즈 제거 칩을 삽입해 처음 사용 시 설정해두면 목소리 이외의 잡음이 제거되는 버튼이 있다.

현재 성진테크윈은 장착 시의 문제점 여부와 고속주행 테스트도 마친 상태로 수개월간의 시장조사 끝에 미국, 유럽 등지로의 수출에 주력한 뒤 내수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문의 : 042-271-1177

• 행사안내 •

벤처국방마트를 ‘국방 축제’로 대폭 확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벤처국방마트가 대폭 확대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벤처국방마트를 전시회를 비롯해 지상군 페스티벌, 학술대회, 각종 경연대회 등으로 개최하여 ‘국방 축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육군은 ‘벤처와 국방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은 10월 17일부터 4일 동안이며 행사 내용은 전시행사와 학술회의 등 4개 부문 16개 분야로 나뉘어 대전 무역전시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는 1백50개 벤처 및 국방 관련 기업이 개발한 ‘방산기술 제품전시회’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무기와 장비 50여점을 전시하는 ‘최신 지상무기장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육군 홍보관과 진중장작품 전시회를 열어 육군의 활동상 및 장교와 부사관, 특기병 선발제도 등을 소개하고 장병들이 군생활에서 틈틈이 만든 창작품을 전시한다.

벤처국방마트는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후원한다.

문의 : 042-365-3001